

문민시대 개막과 출판문화

崔東鎬

시인·고려대 교수

책의 해가 시작되면서 문민시대가 열린다고 한다. 그 어느 것 하나가 반갑지 않은 것이 없다. 경제적 상황이 조금 어둡다고 해도 국민 모두가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는 것 같다.

그러나, 책의 해를 맞이하는 신년 벽두부터 신춘문에 소설 작품 중의 하나가 표절로 밝혀져 당선 취소되고 기성작품을 짜깁기한 표절작에 대한 시비로 문단이 떠들썩하다. 돌이켜보면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문단의 주변에서는 이른바 혼성모방을 내세운 작품들의 표절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남의 작품도 자신의 컴퓨터에 입력되지만 하면 모두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부르조아사회의 물신주의는 모든 것을 상품화시키면서, 인간의 양심이나 영혼까지도 화폐로 뒤 바꿔버리고 있다는 느낌을 부인하기 어렵다. 60년대 후반만 하더라도 한 권의 책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책방을 들러야 했으며, 그 한 권의 책을 가보처럼 귀중하게 여기며 밤새워 읽지 않았던가. 등불을 밝히며 원고지 위에 깨알같이 쓰던 습작가의 체험을 모두 다 잊어버리지는 않고 있을 것이다.

시내 중심가의 대형서점에 나가보면 엄청난 책의 홍수를 볼 수 있다. 물량면에서 보자면 한국의 책 생산은 세계 상위권에 들 것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그 내용을 분류해 보면 참고서류나 대중적인 오락물들이 대부분이고 특히 외국서적의 무책임한 번역류나 이미 출간된 다른 서적의 표절에 가까운 재탕의 책들이 대종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노벨문학상이 유행하던 시절 수상작 발표 일주일 안에 번역서가 서점가에 등장하는 세계적 기록(?)을 가지고 있던 한국의 출판 현실에서, 이제는 남의 책을 과감하게 베끼거나 표절하는 행위가 날로 확산되어가는 이즈음 책의 해를 선언하고 출판문화의 활성화를 논한다는 것은 어쩌면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임기응변에 지나지 않는다. 무조건 팔리기만 하면 된다는 식의 천민상업주의가 지배하는 한 책의 해가 선정되고, 아무리 많은 책이 쏟아져 나오더라도 그것은 무의미한 쓰레기더미의 양산에 불과할 것이다.

여기서 문민시대의 출판문화에 대해 한가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달려나가기만 하는 줄속주의가 아니라 사회 각계각층에 신중하고 사려깊은 건전한 출판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군사혁명시대의 속성주의와 표절식의 베끼기 출판문화가 밀접한 상관성이 있다는 것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행사만 요란하고 알맹이 없는 책의 해가 될 것인가, 아니면 이제 한 권 한 권 성의를 다한 의의 있는 출판물을 발간하는 책의 해가 될 것인가는 책과 함께 사는 우리 모두의 판단과 선택에 따른 것이라고 본다. 책의 생산자인 저자와 출판사 그리고 그것의 구매자 모두의 노력에 의해 참다운 책의 해는 가능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무책임한 책을 거부하고 최선을 다한 책을 고르는 독자들은 반드시 그러한 책의 공급자를 만나게 될 것임에 틀림없다.

니체는 “모든 책 중에서 나는 다만 사람의 피로써 쓴 것만을 좋아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악서가 양서를 구축하고 사탕발림이 쓰디 쓴 약을 내버리게 하는 식의 책의 해는 누구에게도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사색하고 꿈꾸는 것을 가르쳐 주는 훌륭한 책들로 책의 해가 풍성해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뉴스 2 '책의 해' 선포식 거행·외

표지 4 잊혀져가는 옛말의 숨씨 좋은 복원
「민족생활어사전」 낸 이훈종박사

연중기획 ① 6 독자 반응 격렬했던 당대의 성서 — 조남현

한국근대사와 책의 사회사 ③ - 「무정」

- 서평 10 현용준 「무속신화와 문헌신화」 — 손종흠
한상범 「관료주의와 기본적 인권」 — 양승무
11 강주진 「한국학사고」 — 정구복
위커 「침묵의 대화」 — 정진홍
12 클린 「우리속에 있는 여신들」 — 박혜란
복거일 「파란달 아래」 — 채호석
13 한수산 「진흙과 갈대」 — 하응백
이희성 「유역」 — 이동하

초점 14 학습교양도서 개발 붐 이룬다

대입제도 개편 따라 수험용 청소년도서 잇단 출간

출판화제 16 책에서 찾는 불행극복의 묘약

경제현실 진단하고 해결책 찾는 책들 주목 끌어

17 컴퓨터통신 연재를 책으로도 선보인다

새로운 매체실험 결과 종이책으로 발간

18 책으로 가르치는 '올바로 말하기'

「한국어 표준발음사전」 등 관련도서 잇달아 선보여

19 철저한 검증 거친 전집출판의 모범

술 출판사의 「결정본 김지하 시선집」

연중기획 ② 20 최고 최대 장서 갖춘 국가대표도서관

책의 해에 찾아가본 책의 명소 ① 국립중앙도서관

자료 21 1992년 출판통계

현지취재 22 “그들도 어려운 전환기에 놓여있다” — 오진택

중국 조선족사회의 조선어출판 현장을 가다

이책그사람 24 「양귀비던」 낸 김해석씨

「스타」 번역한 이상률씨

25 「아버지란 무엇인가」 낸 노영희 교수

「초밥」 낸 남춘화씨

에세이 26 '고전' 과 '골동'을 겸한 현책들 — 서정인

세계의 책 28 한 이단아가 일으킨 박물관의 혁명·외

30 독자서평

32 화제의 신간

34 신간안내

40 200자 안내

42 신간목록

48 프리즘/재미있는 책 이야기/정기구독안내

표지사진/김홍진